

섬진강 상류 지역의 민가건축에 관한 연구

- 평면유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lk Houses in the Upper Area of Seomjin River

- focused on the generating housing floor plans -

남 해 경* 허 성 제**
Nam, Hae-Kyeong Heo, Seong-Je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lk houses in the upper area of Seomjin river in the view point of generating housing floor plans by their human and natural elements of environment. Because they are formed differently as them and have the characteristics as the houses in the upper area of Seomjin river.

Seomjin river flows from mid-west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to the southern sea. This is about 212.3km long and the fourth in the south of the Korean peninsula. It is surrounded high mountains in the upper area and makes open field in the mid and lower area of river.

The study is surveyed and analyzed to the folk houses of the middle and lower class people in the area of Seomjin river. Because they have been formed by their natural and human elements of environment gradually. They are 35 houses - 13 in Jinan-kun, 4 in Imsil-kun, 10 in Namwon city, 10 in Sunchang-kun. They are analyzed by their floor plans and their spatial relation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they are made by their natural and human elements of environment. There are some houses with semi-several wings and with storage that are appeared in the mountain village. It reflects that they are surrounded by high mountains. And there are some houses with wooden floor room that are appeared in the area of river little in the area of mountain. To prevent wind from the river the houses are layouted as a form - open \perp type, open \sqsubset type, and their wall is made of stone and planted bamboo trees around their houses.

I. 서 론

인류의 문화가 큰 강 유역에서 시작된 것을 보아 알 수 있듯이 강은 예로부터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다. 뿐만 아니라 강은 문화를 교류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그 유역에는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어 왔다. 따라서 강을 중심으로 농경문화가 전개되고 강을 따라

서 고인들을 비롯한 선돌, 주거지 등의 건축문화가 형성된 것을 보아도 강은 건축문화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민가는 민중의 건축(folk architecture)으로서 지역 주민의 욕구(need)와 가치(value)를 직접, 간접으로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¹⁾ 특히 민가건축은 그 지방이 가지는 자연적, 인문적, 사회적 환경 요소를 포괄적으로 함축하고 있다. 즉 지역의 주민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 정희원, 공학박사, 대불대학교 건축공학과 조교수

** 정희원, 공학박사, 한려대학교 건축공학과 전임강사

재료, 경제력 등을 활용하여 생활에 필요한 적당한 집을 지었던 것이다. 따라서 민가 건축은 그 지역의 환경을 반영한 고유의 평면 형태 및 공간구조, 건축적 특성을 지니게 되며 이들 건축문화에는 그 지역의 지역성과 시간성이 직·간접적으로 반영된다. 지형지세, 기후 등의 자연환경 요소와 사회제도, 문화수준, 생활양식, 풍습 등의 인문환경 요소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그 지역의 주거환경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문적, 자연적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진 주거 유형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섬진강 상류지역에 위치한 민가건축을 대상으로 안채의 평면유형을 중심으로 조사·분석함으로써 강이라는 환경매체가 주거발달에 미친 영향과 이들 인자로 인한 민가건축의 특성을 추출하고자 한다.

II. 대상지역의 환경

1. 인문환경

섬진강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남부 지역의 중서부를 관류하면서 그 유역은 전라남·북도과 경상남도의 3도에 걸쳐 있다. 이 지역의 문화는 과거 신석기 시대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에 구석기 유적이 발견됨으로써 구석기 시대까지 역사를 추급할 수 있게 되었다.²⁾ 이후 청동기 시대를 거치면서 고인돌 문화지가 집단적으로 형성되는 등 문명의 주류지로 대두된 곳이다.

2. 자연환경

1) 위치

섬진강은 노령산맥의 동쪽 경사면과 소백산맥의 서쪽 경사면인 전라북도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 팔공산에서 발원하여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를 관통하여 남해의 광양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으로 길이 212.3km, 유역 면적 4896.5km²로 남한에서 4번째로 긴 강이다. 섬진강의 상류

유역은 고산준령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중류부의 남원 일부 지역, 곡성, 구례 일대에 평야가 발달되어 있을 뿐 다른 강에 비하여 평야가 발달되지 못하였다. 특히 상류 지역은 전라북도 진안군, 장수군, 정읍군,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로서 중류나 하류 지역에 비하여 고지대에 속한다. 이 지역의 토지는 경지면적이 약 20%, 임야 72%, 기타 8%로서 비교적 평야가 발달되어 있지 못하다.

행정구역으로는 전라북도 진안군, 장수군, 정읍시,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남원시, 전라남도의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광양시, 순천시, 담양군, 경상남도의 하동군 등이 해당된다. 이중 본 연구에서는 상류 지역인 전라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상류 지역이 고지대의 산지이고 분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서 폐쇄된 공간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의 교류가 적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민가 건축의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섬진강 전체 지역중 1차적으로 상류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2) 기후

본 연구 대상 지역의 평균 기상과 전라북도 지방 전지역의 평균 기상은 표 1과 같다. 표에서와 같이 전라북도 지방의 전체적인 평균 기상과 본 연구 대상 지역인 섬진강 상류 지역의 기상은 비슷한 가운데 약간의 차이가 나고 있다. 표에서와 같이 연평균 기온은 전라북도 지방의 평균 기온 보다 0.9 °C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고 기온은 0.9 °C 높고, 최저 기온은 무려 5.1C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연평균 강수량은 1408.5mm로서 전라북도 지방의 평균 강수량인 1389.1mm 보다 19.4mm 더 많다. 적설량은 전라북도 지방의 평균보다 4cm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풍향은 남동풍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섬진강 상류 지역이 고산지대로서 분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표 1. 대상 지역의 기상

| | 연평균 기온 (°C) | 최고 기온 (°C) | 최저 기온 (°C) | 강수 량 (mm) | 적설 량 (cm) | 연평균 풍속 (m/s) | 풍향 |
|----------|-------------------|------------------|------------------|-----------------|-----------------|--------------------|----|
| 전북 | 12.6 | 29.7 | -4.3 | 1389.1 | 13.2 | 1.3 | SE |
| 대상 지역 | 11.7 | 30.6 | -9.4 | 1408.5 | 17.1 | 1.3 | SE |

자료 : 전라북도 통계연보

Ⅲ. 민가 건축의 고찰

1. 조사대상의 선정

본 연구에 있어서 조사대상의 선정은 지역, 건축 연대, 경제력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지역적으로는 섬진강 상류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강을 따라 인근에 위치한 지역의 민가 건축을 대상으로 하였다. 행정구역으로는 현재의 전라북도 진안군, 임실군, 남원시, 순창군 지역이 해당된다. 다만 완주군과 정읍시의 지역은 일부 지역에 한정되고 조사과정에서 대상을 찾지 못하여 제외하였다.

건축 연대에 있어서는 1910년 이전에 건축된 민가 건축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일제 이전에 건축된 민가가 우리나라의 양식을 담고 있으면서 이민족의 영향을 적게 받았으리라는 판단에서 기준을 두었다. 또한 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1차적으로 건축 연대를 고려하였으나 2차적으로 연대는 그만큼 오래 되지 않았을지라도 민가건축의 원형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은 본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중간과정에서 변형된 민가 건축은 변형되기 이전의 평면을 기준으로 하였다.

경제력의 기준에 있어서는 이 지역의 경제적인 수준으로 중류층과 하류층의 민가 건축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중류층과 하류층의 민가 건축이 오랜 세월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건축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환경을 가장 많이 반영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류 주택은 건축주의 부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환경보다는 주인의 권위나 위상을 표현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대상이 된 민가 건축은 진안군 13채, 임실군 4채, 남원시 8채, 순창군 10채로 총 35채이다. 이들은 그림 1에 위치를 표시하였다. 조사는 1999년 1월에서 7월까지 7개월 동안 실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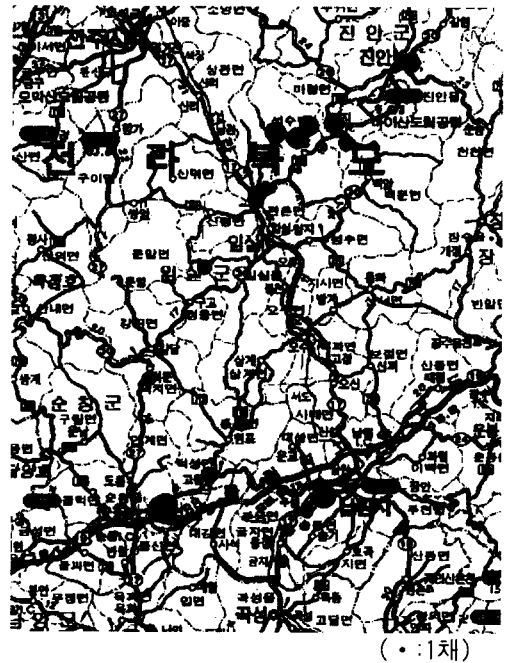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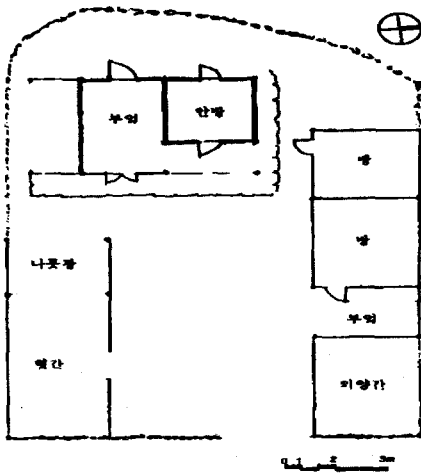
그림 1. 조사대상 민가건축의 위치도

2. 민가건축의 사례

본 연구의 대상 지역에서 조사된 민가는 홑집형과 반겹집형의 민가가 나타나고 있다. 반겹집형은 완전한 형태의 겹집이 아닌 형태로서 홑집형과 겹집형의 중간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1) 홑집형

* 진안군 성수면 달기리 중달 김대근 가
이 집의 건축 연대는 1890년경으로 추정된다. 배치는 동향의 안채를 중심으로 행랑채와 부속사가 열린 ㄷ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안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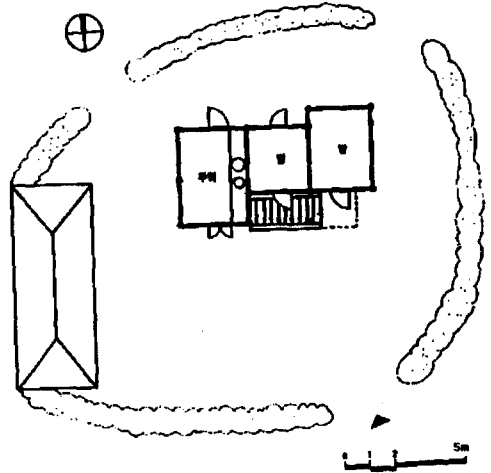
도면 1. 진안군 성수면 달기리 중달 김대근 가

부엌과 방으로 구성된 2실형으로 가장 기본적인 주거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지붕은 과거 초가지붕이었던 것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량하였는데 내부는 도리와 보가 없는 모임지붕(hut) 형태로 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초창기의 주거형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동서내 강용 가

이 집은 섬진강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건축 연대는 1900년 경으로 알려져 있다.

배치는 정남향의 안채를 중심으로 좌측에 부속사가 위치하고 있다. 집 주위에는 대나무 숲이 형성되어 있어 강바람을 막기 위한 방풍림의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사료된다. 평면은 부엌, 방, 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의 전면에는 본래 마루가 전부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안방 앞에만 마루가 위치하고 있다. 구조는 지면보다 약간 높게 흙을 쌓아 지반을 형성하고 기둥을 세웠으며 벽은 흙으로 쌓았다. 그리고 그 위에 슬레이트 지붕을 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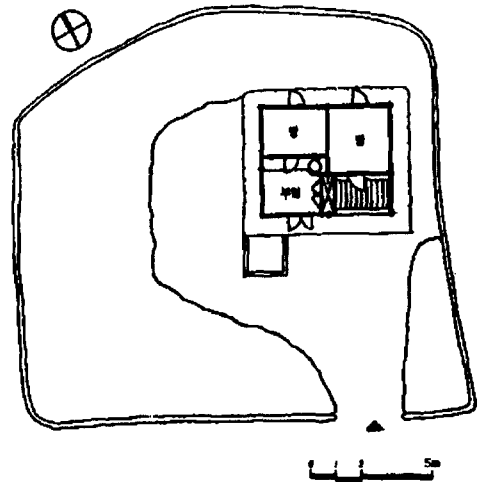
도면 2.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동서내 강용 가

2) 반곁집

*임실군 덕치면 회문리 윤옥순 가

이 집의 건축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인 1900년 경이라고 한다. 현재의 집주인은 50여 년 전에 이사와서 살고 있다고 한다.

배치는 남향의 안채가 있고 담장은 돌로 쌓았다. 평면은 거의 정방형 형태로 부엌과 방, 도장



도면 3. 임실군 덕치면 회문리 윤옥순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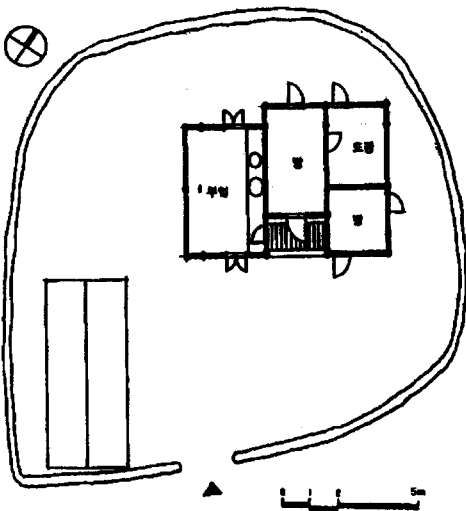
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조는 나즈막한 지반위에 주초석을 놓고 목재 기둥과 흙벽으로 쌓았다. 특이한 점은 지붕이 외부는 슬레이트 지붕으로 도리와 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부는 모임 지붕으로 되어 있다. 이는 평면이 정방형 형태이고 규모가 작은 점을 이용하여 주거건축의 초기 형태인 움집(hut) 구조로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형태의 집은 진안군 성수면 달기리 김대근 가에서도 볼 수 있다.

3) 4실형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이성렬 가

이 집은 1910년경에 건축되었으며 현재는 할머니 한 분만이 살고 계신다.

배치는 정면의 대문을 중심으로 안채가 정남향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그 왼쪽에는 헛간이 있다. 평면은 부엌, 방, 도장, 방이 겹집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면 중앙에 마루가 위치하고 있다. 마루의 양쪽 기둥은 하나는 원형 기둥이고 하나는 각형 기둥인데 이는 다른 집에서 옮겨다 건축한 것이라고 한다. 구조는 자연석 기단 위에 목재 기둥을 세우고 심벽 위에 흙을 발라 벽을 축조하였으며 지붕은 슬레이트로 되어 있다.



도면 4.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이성렬 가

3. 분석 및 종합

섬진강 상류 지역의 민가 건축을 평면별로 유형화하고 이를 지역에 의한 분포로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각 평면의 유형은 민가 건축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실을 단위로 하였으며 평면의 전개과정(generating)에 초점을 두었다. 실은 부엌, 방, 대청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이외에 도장, 마루, 출입구, 생활상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였다.

표 2에서와 같이 전체 민가 건축의 표본은 35채로서 각 지역별로 거의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표본은 흙집이 22채, 반겹집이 13채로 나타나고 있다. 평면은 형태와 실을 고려하여 도면 5로 나타내었다.

표 2. 조사대상지역 민가건축의 유형별 분포

| 유형 | 진안군 | 임실군 | 남원시 | 순창군 | 계 | |
|-----|------|-----|-----|-----|----|----|
| 흙집 | 2실형 | 1 | 1 | | 2 | |
| | 3실형 | 7 | | 6 | 4 | 17 |
| | 4실형 | 1 | | | 1 | 2 |
| | 5실형 | | 1 | | | 1 |
| | 소계 | 9 | 2 | 6 | 5 | 22 |
| 반겹집 | 3실형 | 1 | 1 | | 1 | 3 |
| | 4-1형 | 1 | | | 1 | 2 |
| | 4-2형 | 1 | 1 | 2 | 2 | 6 |
| | 5실형 | 1 | | | 1 | 2 |
| | 소계 | 4 | 2 | 2 | 5 | 13 |
| 계 | 13 | 4 | 8 | 10 | 35 | |

1) 흙집

흙집은 남부지방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민가건축의 평면 형태로서 2실형에서부터 5실형까지 나타나고 있다. 2실형은 주거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부엌+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3실형은 이번 조사·연구에서 17채로 가장 많이 나타난 형태이다. 실의 구성은 부엌+방+방의 형태로서 2실형에서 발달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마루를 고려한다면 마루가 없는 형, 마루가 방의 전면 일부에 위치하여 방과 방이나 방과

부엌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형, 마루가 중앙에 위치하여 방과 방을 전부 연결하거나 부엌과 일부 연결하는 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루가 중앙에 위치한 형은 가장 많은 빈도수(9)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때 마루는 평면에 있어서 중심 장(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안채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 형에서는 1채를 제외한 8채가 마루를 중심으로 방과 부엌을 연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루는 2실형의 경우 마루를 외부에서 제작하여 끼워넣은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3실형에서는 구조물과 같이 마루를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마루가 구조적으로 1칸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부의 마루는 돌출된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건축 구성 요소로서 처음부터 제작되었다기 보다는 외부에서 마루를 제작하여 끼워 넣거나 아니면 기존의 마루를 확장한 형으로 구조체로서 완전한 형식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4실형은 마루를 중심으로 부엌+방+도장+방이 一자 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장의 출입은 마루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5실형은 부엌과 방, 도장, 대청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으로 이 지역에서 대청이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규모면에 있어서도 경제적으로 중류 이상의 주거건축임을 알 수 있다.

2) 반곁집

본 조사대상지역에서 나타난 반곁집은 총 13채로 조사되었다.

3실형은 부엌+방+방이 7자의 반곁집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실의 구성은 부엌이 중심이 되거나 방이 중심이 되어 마루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다. 마루는 건축공간의 구성 요소로서 1칸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라북도 산간지방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이기도 하다.³⁾ 이 형은 전라북도 산간지방의 유형과 비슷하나 다른 점은 산간지방 형은 마루의 면적이 작고 기능도 중시하지 않는 툇마루의 형식인데 반하여 섬진강 상류 지

역의 민가 건축은 마루가 비교적 발달되어 구조체로서 1칸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적인 측면에서 민가 건축이 산간지방에 위치해 있으나 강(江)의 유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마루를 발달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4실형은 부엌과 3개의 방으로 구성된 형(4-1형)과 부엌과 2개의 방, 1개의 도장으로 구성된 유형(4-2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4-1형은 마루를 중심으로 부엌과 방이 구성되어 있으며 2개의 방이 반곁집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평야지방에서는 부엌과 방이 一자형으로 나란히 구성된 형이 많이 나타나는데 반하여 이 지역에서는 부엌과 방, 도장으로 구성된 반곁집 형태의 민가건축(4-2형)이 두 번째로 많은 빈도수(6)를 나타내고 있다.⁴⁾ 마루는 전면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 뒷편의 도장과는 직접 통하지 않고 부엌과 방의 연결 기능을 지니고 있다. 도장은 작은 방의 뒷편에 위치하고 있으나 출입은 안방을 통해야만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역 주민의 구전에 의하면 도장의 출입은 그 집의 경계권이 안방의 주인에게 있는 경우 안방을 통하여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나 며느리나 분가한 자제에게 어느 정도 경계권을 이양한 경우는 작은방이나 마루를 통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평야지방의 민가건축에서는 건물 내부에 도장이 거의 없는데 이는 평야지방의 경우 수장을 마당에 한 점과 산간지방에서는 곡식을 각별히 취급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 주민의 생활상이 그대로 건축에 반영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들 반곁집의 유형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완전한 형태의 곁집은 아니지만 반곁집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도장이 발달한 점을 보아서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곁집은 지금까지 남부 지방이 아닌 한반도의 북부 지방이나 산간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마루의 면적이

| 유형 | | 민가건축 | |
|----|-----|------|--|
| 형태 | 실형 | | |
| 흘집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반걸집 | 3 | |
| 4 | | 4-1 | |
| | | 4-2 | |
| 5 | | | |

도면 5. 민가건축의 유형화 도
(R:방, K:부엌, D:대청, S:도장)

흘집형

- 2실형 진안군 성수면 달기리 주달 김대근(씨) 덕
임실군 관촌면 회봉리 항두 무명(씨) 덕
- 3실형 순창군 동계면 서창리 양옥숙(씨) 덕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동서내 강용(씨) 덕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광흥근(씨) 덕
순창군 동계면 서창리 노영자(씨) 덕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노기선(씨) 덕
진안군 성수면 증길리 하달 전기현(씨) 덕
진안군 성수면 증길리 하달 권달웅(씨) 덕
진안군 마령면 계서리 방화 박영철(씨) 덕
진안군 마령면 계서리 방화 김용진(씨) 덕
남원시 송동면 신기리 김종녀(씨) 덕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태동 김점덕(씨) 덕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김운식(씨) 덕
순창군 유등면 건곡리 강학조(씨) 덕
진안군 마령면 계서리 계남 고운산(씨) 덕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이애금(씨) 덕
진안군 마령면 강정리 강정 전성용(씨) 덕
- 4실형 순창군 유등면 학촌리 김봉수(씨) 덕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봉좌 장태근(씨) 덕
- 5실형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무명(씨) 덕

반걸집형

- 3실형 임실군 덕치면 회문리 윤옥순(씨) 덕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성안 무명(씨) 덕
- 4-1형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원좌산 손부득(씨) 덕
순창군 유등면 건곡리 김효인(씨) 덕
- 4-2형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 송대 무명(씨) 덕
임실군 운암면 서지동 박동명(씨) 덕
남원시 송동면 장국리 강봉완(씨) 덕
순창군 유등면 내이리 박영균(씨) 덕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이성렬(씨) 덕
남원시 금지면 창산리 호산 김동근(씨) 덕
- 5실형 순창군 유등면 건곡리 김효인(씨) 덕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봉좌 이상규(씨) 덕

산간지방의 형에 비하여 규모가 큰 것을 보아서도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실형은 마루를 중심으로 부엌과 방, 도장, 대청으로 구성된 형이다. 5실형은 대청을 통하여 경제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한편 강 유역으로서 평야지방의 특성과 남부지방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민가건축의 평면이 지역의 환경적 영향을 반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섬진강 상류 지역의 민가건축을 대상으로 자연적, 인문적 인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민가건축의 특성을 배치 및 평면유형을 중심으로 조사·분석하여 추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섬진강 상류 지역의 민가 건축은 주로 고산의 분지에 위치하여 산간지방의 환경과 강 유역의 영향을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한 내용으로는,

1) 전체적은 조사대상 민가 건축중 홑집과 반겹집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반겹집은 남부의 평야지방보다 많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전체적은 배치형태는 ㄴ자형이나 열린 ㄷ자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남부평야지방의 민가 건축이 一형으로 배치된 것과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반겹집을 중심으로 4실형과 5실형에서는 곡식보관 장소인 도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산간지방의 민가건축과는 다른 특성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강유역의 특성으로 추론되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홑집과 반겹집 3실형부터 소규모 민가에서도 마루가 발달해 있었다.

2) 조사대상 민가건축 중에서 평야지방의 건축보다 많은 수의 민가가 담장을 둘로 축조하거나 대나무를 식재하고 있는데, 이는 방풍의 기

능을 수행하지 않았나 사료된다.

따라서 섬진강 상류 지역의 민가 건축의 분석 내용을 종합하면, 산간지방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과 강 유역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으로 중·하류 지역에 관한 차후 연구와 더불어 보다 깊이 있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강 유역의 건축으로서 방풍의 기능을 수행하는 담장이나 마루에 관한 부분적인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

- 1) Amos Rapoport, House Form & Culture, Prentice-Hall Inc., 1969, pp.1-3
- 2) 전남대 박물관, 주암댐 수몰지구 발굴보고서, 1986; 이후 많은 선사주거지, 유물 등의 발굴 결과가 있다. 그러나 상류 지역에서는 아직 구석기 유적의 발굴이 보고되지 않았다.
- 3) 남해경·유남구, 전라북도 산간지방의 민가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4. 2, pp.75-83
- 4) 남해경·유남구·이자, 전라북도 평야지방의 민가 건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전북지부 논문집, 1995. 12, pp.10-22

참 고 문 헌

1. 강영환,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1994.
2. 김광언, 한국의 주거민속지, 민음사, 1994
3. 김홍식, 한국의 민가연구, 한길사, 1992
4.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1986
5. 장보웅, 한국의 민가연구, 보진재, 1980
6. 주남철, 한국의 주택건축, 일지사, 1980
7.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상·하), 열화당, 1995.
8. 김명복·김일진, 강원도 남부 산간지역의 겹집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2. 11, pp.61-70
9. 남해경, CAD System을 응용한 한국민가 건축의 유형화에 관한 방법론적 연구, 전북대학

교 박사논문, 1992

10. 조성기, 한국남부지방의 민가에 관한 연구,
영남대 박사논문, 1985
11. Amos Rapoport, House Form & Culture,
Prentice-Hall Inc., 1969